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이종윤 목사님, 당신이 그림습니다



고 이종윤 원로목사

낮이나 밤이나

인생의 길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이 장구하지 않은 것처럼 밤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의 오만과 밤의 비탄을 둘 다 삼가야 합니다. 모름지기 낮에는 밤을 생각하고 밤에는 새벽을 내다보는 슬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70평생을 돌이켜 보니 내 인생도 파란만장의 세월이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6.25 한국전쟁과 4.19, 5.16을 거쳐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되기까지 심한 혁명적 변화가 있던 격동기에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렁에 빠졌던 일도 있었고 산의 정상에서 환호성을 칠 수 있었던 흑백이 교차되면서 심한 굴곡의 생애를 돌이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날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생을 살 수 있다면 지나온 그 길대로 살 수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낮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밤을 지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시 74:16).

인생의 길에는 낮과 밤이 모두 유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난 20여 년은 가혹하리만큼 아픔도 있었지만 그에 반비례하여 가장 찬란한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두터운 벽 앞에 앉아 부영이의 울음소리를 내며 영영 울던 때도 있었고 가슴에 피를 말리면서 짜낸 설교를 토해내었지만 미숙한 지진아처럼 변화 없던 이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감격과 감사는 무엇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환희였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협력해 주어야 할 분이 자리만 차지하고 협조적 방해꾼 노릇을 할 때 무력감 때문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기대하지 않던 무명의 성도가 진정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동력이 되었던 것을 미련한 종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감수했듯이, 바울은 질병도 은혜의 가시로 알고 참고 견디었듯이 그것이 단 것이든 쓴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최상의 메뉴로 알고 감사로 받아야 했습니다.

인생의 길에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함께 즐겨워했습니다.

창조의 날에도 낮과 밤은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우리 위해 있듯이 형통과 곤고는 둘 다 은혜로운 선물로 알고 즐겨워해야 합니다. 못 다한 충성과 마치지 못한 사랑을 아쉬워하고 나의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던 것들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고 나는 감사하면서 여한이 없이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이 글은 2010년 12월 26일 주일,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순례자에 고별사로 기고하신 글입니다.

고 이종윤 원로목사 일대기

Coram Deo,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불탄 포도넝쿨처럼 논두렁에 버려진 타다 남은 부지깡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쓸모없고 무익한 종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그릇에 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합니다. 나는 천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 스승과 선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홍순복, 세 딸 미리, 미영, 미경이의 사랑 때문이요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서울교회 성도들 덕분입니다.”

이종윤 목사는 항상 자신을 불탄 포도넝쿨, 타다 남은 부지깡이에 비유했다.

철저한 말씀 중심의 설교자요, 하나님 중심의 목회자요,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이자,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종윤 목사는 신행일치의 삶을 좇아 평생을 씀 없이 달려오며 한국교회는 물론, 전세계 복음주의권이 주목하는 많은 족적을 남겼다.

이종윤 목사는 1963년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영국 세인트앤드류스 대학, 독일 튀빙겐 대학 등에서 수학하며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바탕으로 신학적 체계를 수립하며 아시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고 1976년 귀국하여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와 전주대총장 등을 역임하고, 장신대와 연세대 등 여러 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또 세계신약학회(SNTS)회원, 아세아신학연맹(ATA)이사 및 신학교인준위원, 세계복음주의협의회, 교회갱신위원장으로서, 한국 복음주의신학회와 한국장로교신학회, 군선교신학회 등을 조직하며 한국 교회를 이끌었다. 목

사 안수 이후 35년 동안에 140편이 넘는 공식 논문과 70여 권의 책을 썼고, 수천 회에 이르는 설교와 강연, 저술활동으로 복음주의 신학 발전에 적잖이 기여를 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다.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모임인 세계신약학회의 한국인 회원은 지금까지 이종윤 목사를 포함한 단 두 명뿐이었다.

1991년 10월 서울교회를 창립, 시무하면서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델을 정립하고,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설립하여 해마다 김치신학세미나와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국내외의 수많은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전세계복음주의권의 대표적 선교운동인 로잔운동에 뛰어들어 한국로잔위원회와 아시아로잔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로잔 국제 지도자대회와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100주년 기념 한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처럼 이종윤 목사는 교단과 교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몇 안 되는 교계 인물이었다. 2004년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새번역을 위해 한기총과 NCCK를 동시에 대표하는 위원장을 맡아 100년 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새번역을 주도했고, 세계 유일의 군선교 신학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 역임, 군선교연합회의 비전2020운동 위원장으로 군복음화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한기총교회발전위원장과 신학위원장을 맡아 순결서약식 운동, 탈북난민보호 UN청원 운동, 기독교 교도소 설립, 목사복 제정, 한기총공동신앙선언문 작성 등을 통해 한기총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기여했다.

그뿐만이 아닌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탄생 5백주년 기념행사의 대표회장, 26개 장로교단이 연합과 일치로 외친 ‘장로교의 날’ 제정을 제안하고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을 대표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긴 그는 교계로부터 ‘이 시대 또 하나의 칼빈’으로까지 불리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그의 목회 여정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사역들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영적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종윤 목사는 1940년 8월 23일 충남 천안에서 부친 이규남(李圭南)씨와 모친 박귀순(朴貴順)씨 슬하의 6남 4녀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열한 살이 되던 1951년 1월 첫째 주일에 혼자서 교회를 찾아가다. 이 날은 이종윤 목사 생애의 기념비적인 날로 실로 그가 새 인생을 출발하는 날이기도 했다. 학창시절 이종윤 목사는 달리기를 잘해서 선수 생활까지 했었지만 목사의 소명을 받은 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청소년 시절부터 청교도적 삶을 살기 위해 철저히 힘써왔다.

1967년 5월 23일 이종윤 목사는 김창인 목사의 주례로 당시 충현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홍순복 사모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 딸 미리, 미영, 미경을 두었다. 홍순복 사모는 1938년 6월 18일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면에서 출생하며 서울에서 수도여자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 생물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었다.

1976년 11월 28일 이종윤 목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교수가 되어 후학을 양성했다. 아세아연합신학원은 아시아 복음화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창설된 신학교이다. 그가 부임한 아세아연합신학원에는 당시에 학생이 4명에 불과했고 교수는 5명이었다. 그러나 이종윤 목사는 “오늘부터



청년 이종윤 목사



연세대학교 시절



충현교회 전도사 시절



1992 서울교회 첫 홍해작전



1997 부활절 예배



1993년 아프리카 지역 캠프 세미나

26억 아시아인 앞에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담력을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성도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일은 언제나 어려웠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며 이민자들을 위해 개척한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가 이제 겨우 젖을 댄 상태였고, 목자가 떠나려고 하니 교인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났다. 이것은 후에 할렐루야교회에서 충현교회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기에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감히 발길을 옮겼다.

1981년 새문안교회는 강신명 목사가 은퇴하면서 이종윤 목사를 청빙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안일함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며 아세아연합신학교를 위해 할렐루야교회를 창립했다. 할렐루야교회는 1980년 11월 신동아그룹 회장이었던 최순영 장로 가족과 함께 자그마한 교회 건물에서 설립예배를 드리며 가족 교회로 시작한 교회였다. 최순영 장로는 이종윤 목사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때 실업인 선교회 예배에 설교하러 갔을 때 알게 된 사람으로 그때부터 신앙의 동지가 되었다. 그리고 충현교회 2대 목사로 가기까지 7년 6개월간 할렐루야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2,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시켰다. 이후 충현교회 2대 목사로 부름을 받으며 우여곡절 끝에 1988년 4월 충현교회에서 위임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충현교회 당회장이 된 이종윤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며 뜨거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다. 당시 충현교회는 역삼동에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건축공사가 끝나 입당예배도 다 끝난 상태이었으나 상당한 부채가 남아있어 헌당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이종윤 목사는 부임 후에 하나님 앞에 내 앞의 홍해를 건너게 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홍해작전’을 명령받았고 첫 번째 홍해작전을 갖게 되었으며 그 해가 끝나기 전에 많은 부채를 다 청산하고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홍해작전’은 서울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져갔다. 1988년 6월 6일을 기해 시작된 홍해작전은 한국교계로부터 ‘길선주목사이래 최대의 회개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홍해작전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이후 이종윤 목사의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맹렬하게 진행됐다. 모든 제직들이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 훈련을 받도록 하며 제자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해에 1,800여 명의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선교대회를 열었고 또 세계복음

주의협의회 교회갱신위원장을 맡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WCC 7차 대회에서는 신학 검증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렇게 3년, 그토록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하던 충현교회를 이종윤 목사가 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서울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기까지 잠시 미국에 머물며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짧지만 길고 길었던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시고 아셨던 예수님이 자신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삭발을 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비장함으로 삭발을 하고 미국에서 귀국했다. 이종윤 목사는 미국에 머물 때 ‘이 목사가 충현교회를 그렇게 떠나고 교회에 큰 희의를 느껴 이후로는 절을 가려고 한다’는 한 성도의 편지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어 다시금 목회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폈다고 훗날 그 때를 회상했다.

1991년 11월 24일 추수감사 주일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서울교회 간판을 건 이종윤 목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회를 시작했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 창립의 주역으로 앞장 선 이종윤 목사는 서울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1993 전교인 수련회



1993 사랑의 바자



2001 목회자신학세미나



2003 한마음한가족체육대회



1부 가족예배 중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중



1991년 서울교회 창립예배



2005 성경 암송필사



2009 장로교의 날



2010 김창인 목사와 함께

될 것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할렐루야교회에서는 설교로, 중현교회에서는 기도로, 서울교회에서는 섬김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목회의 지침을 삼았다. 여기에 '열열히', '성경적으로', '일관성 있게'라는 수식어를 붙여 열열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된 프로그램이라는 목회지침을 창안했다.

또 균림하는 목사와 장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목사·장로 안식년제를 시행하였는데 이 안식년제는 훗날 위기에 빠졌던 서울교회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그 누가 알았는가!

비록 그를 키운 친정 교회와 뼈아픈 결별의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교단의 스펙트럼을 초월한 초교파적 지도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 휴가도 공휴일도 없이 쉬 없이 일을 해 '일중독자'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다.

2010년 5월 9일 주일 찬양예배 시 이종윤 목사는 실로 20년 만에 당시 94세인 김

창인 목사와 강단에서 해후를 하였다. 김창인 목사는 중현교회의 당회장으로서 1988년에 자신의 후임으로 이종윤 목사를 세웠고, 3년 뒤인 1991년에는 이종윤 목사의 해임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었다. 김창인 목사는 이종윤 목사에게 일평생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었고, 김창인 목사에게 이종윤 목사는 자식과 같은 제자였다. 그러나 마지막엔 그런 스승으로부터 오명을 쓰고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경험까지 했지만 이종윤 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영원한 스승인 김창인 목사의 자택을 방문하여 사제 관계를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종윤 목사는 그의 목회활동을 마무리하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산실인 장신대 신대원과 세계적인 보수신학의 요람 웨스트민스터신대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교회는 2010년 8월 15일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이종윤 목사의 원로, 공로 목사 추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11월 9일(화) 서울강남노회 제47회 정기회는 이를 추인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Man of Church, 교회의 사람 이종윤은 평생 'Coram Deo' 오직 하나님 면전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이종윤 목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고 이종윤 원로목사 추모 시

우리의 아버지!

신동기 권사(시인, 6교구)

사발한 침묵의 밤
바다 밑, 산 뿌리까지
사선을 넘어
빛으로 오신
우리의 목자여

말씀의 날 선 검도
더 버리지 못해
밤새 시린 무릎으로
영혼의 빛
새벽 별 하나 띄우시고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
목숨 같은 내 민족 끌어안고
역사의 반세기
눈물로 묵묵히 달려 오신
비장한 남이시여

온 세계 가슴에 품고
예수를 외치다
그 피가
지금, 여기
서울교회 심장 깊은 곳에
쏟아져 출렁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충만으로 충만하게
땅에서 하늘을 사는
영원한 믿음의 유산
내 사랑 서울교회여

여든두 해
하늘 기쁨 부으시는
비범하고 놀라운 믿음의 여정
당신은
부활의 갈보리 십자가
작은 예수
민족의 영웅
우리들의 아버지

한 뼉 같은 인생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명치끝에 마지막 떨어지는
붉은 눈물
새하얀 세마포 여미시고

별써 가시나이가..
하얀 버선 발
내딛는 님의 얼굴
눈부시게 휘황하여라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모여 한 자리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 순서

목도		인도 : 가족 중 어른
성시	시편 1 편 1-3 절	다 함께 인도자
찬송	301장 (통 460장)	다 함께
기도		가족 중 (다함께)
성경 봉독	시편 85편 1-13절	인도자
메시지	"의가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도자
찬송	28장 (통 28장)	다 함께
주기도		다 함께

성경 : 시편 85편 1-13절

1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13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인은 주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1-3)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4-7)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8-9)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10-13).

1.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좌절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감과 낙심을 이기는 힘은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1-3).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신실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나눠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 현재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현재의 위기와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4-7).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한 해를 시작합시다.

3.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8-9).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4.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바라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이 화평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10).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와 화평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